

산소 같은 IT



김문경 그린벨시스템즈(주)/회장

‘산소 같은 여자’ 라는 커피의 CF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산소이다.

정보기술(IT) 시대에 이러한 산소 같은 존재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바로 유비쿼터스라는 차세대 IT 환경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 Anytime · Anywhere · Anynetwork · Anydevice · Anyservice)는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을 뜻하는 말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지난 98년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 제록스 팔로알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 소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메인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의 물결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약력 : • 대한전선(주) • 대우전자(주) • 현대전자산업(주) • (주)코닉시스템
• 한일정보통신(주) • 현재 그린벨시스템즈(주) 회장/대표이사

이러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컨버전스 기술의 일반화, 광대역화, IT 기기의 저가격화 등 정보기술(IT)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자동차, 가정, 실외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IT 활용이 늘어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는 등 IT산업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미국 AOL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PC 사용자의 43%는 통상적인 네트워크의 접근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모든 전자기기에 컴퓨팅과 통신 기능이 부가돼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각 전자기기가 고유한 주소를 가져야 하며 유선 혹은 무선 을 통해 광대역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홈네트워킹 기술이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홈네트워킹(Home Networking)은 가정(Home)과 디바이스(Device)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망구성(Networking)이란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말이다. 가정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안 어디에 있든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거나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아직까지 홈네트워킹 관련 기술은 일부 가전제품, 전등, 가스등을 원격 조정하는 수준이지만, 각 업체가 표준화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조만간 급속도로 발전할 전망이다.

TV, PC, 휴대폰 단말기 등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거나 융합된 제품들의 등장도 흥미진진하다. 특히 PDA, 웹패드, 게임기 등 PC를 보조할 포스트 PC의 발전과 보급이 기대된다. 컴퓨터가 일정한 공간에서 제한된 용도로만 활용된다면 이러한 제품들은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부엌에서 TV를 보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PC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집안 어느 곳에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이테크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차세대 정보기술(IT)인 유비쿼터스 혁명은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꿈 같은 기술이 아니라 그리 멀지 않는, 곧 우리 일상생활을 질적으로 바꿔놓을 기술이다. 국내 가전 업체를 비롯해 건설사, 통신사 등은 이미 홈네트워크 사업을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와 양산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며 디지털홈을 위한 제품들을 대거 준비중이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디지털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61%인 1,000만 가구 디지털홈 구축을 선언하고 2007년 세계시장 규모가 1천1백83억 달러로 전망되는 디지털홈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까지 2조원을 투입,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약칭인 ‘u-코리아’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5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유·무선망과 통신·방송망을 융합하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NGcN: Next Generation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 본격 나서기로 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수가 없다. 산소 같은 IT, 산소 같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